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하여진¹⁾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 집단을 도출하고, 각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위험 집단, 외현화 집단, 내재화 집단, 고위험 집단의 네 집단이 도출되었다. 하위 집단 분류에는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가족유연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과 가족기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유아의 문제행동, 혼합모형

I. 서론

유아기는 다른 발달단계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발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강지현·오경자, 2011). 이 시기 부적응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미해결된 문제들이 학령기와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ampbell, Shaw, & Gilliom, 2000).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성다점·김춘경, 2017). 이에, 유아기 아동들의 문제행동 양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행동은 사회문화적 기대 및 규범과 아동의 연령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1) 서울대학교 박사

고난 유전적인 성향과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현된다(정현희·정순화, 2004; Kauffman, 1997).

정신병리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평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접근법으로 개인이 특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범주적 접근과 정상과 병리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여 개인을 문제행동의 수준별로 평가하는 차원적 접근이 있다. 범주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DSM)체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인 분류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접근은 증상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적 접근은 증상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강지현·오경자, 2011). 이러한 차원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Achenbach와 McConaughy(1997)가 개발한 아동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문제행동 항목을 수집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넓은 요인(wide-band)과 좁은 요인(narrow-band)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심리 내적인 억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문제로, 위축, 신체증상,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비행과 같이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 부적응적 문제가 겹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서로 구별된 문제행동 영역이지만, 두 문제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동시에 발생하는 공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강지현 외, 2012; Gilliom & Shaw, 2004).

이러한 문제행동은 유아의 개인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된다(Patterson, Dishion, & Yoerger, 2000; Reitz, Dekovic, Jeijer, & Engels, 2006).

먼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아의 개인특성으로는 성별을 들 수 있다. 아동기의 문제행동 양상의 성차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김현정, 2002).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물들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아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경향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지현·오경자, 2011; 임현주, 2015). 반면, 서구연구들은 성별에 의한 직접적인 문제행동 양상의 변화에 대한 일관된 결과는 찾기 어려우며, 성별이 조절변인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물들이 다수 존재한다(Blatt-Eisengart et al., 2009; Lee et al., 2017, Shaw et al., 1998).

다음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성다겸·김춘경, 2017). 유아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 시기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환경은 유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다(Davies, Dumenci, & Windle, 1999; Shagle & Barber, 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의미하며, 부모감독이나 온정과 지지, 의사소통과 일관성 등 특정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온정과 지지 및 관여를 나타내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자녀에 대한 감독과 훈육을 나타내는 통제(control)는 부모양육태도의 측정 및 유형화에 사용된 주요 차원이다(정소희, 2016). 강지현과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만 3-5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친 영향력을 변량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남아에게는 통제적 부모양육태도가, 여아에게는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혜지와 황정원(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취학 전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군집을 나누고, 양육태도 유형별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모두 낮은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문제행동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한 1,435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Pinquart(201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 사회, 언어, 신체 발달을 한다(오정순, 2012; 임현주 외, 2012; Ainsworth & Bell, 1974).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양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아발달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Abidin, 1992; Costa et al., 2006; Nelson et al.,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재엽·정윤경, 2007;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성을 가져 유아의 발달 과정 동안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영진·노승희, 2017). 한편, 오연택과 연규승(2018)등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드러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우울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김선미·김영희, 2015; 송하나·설희정, 2015;

Renk, Roddenberry, Oliveros, & Sieger, 2007).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우울한 기분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흥미의 결여, 그리고 위축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lner, Welner, McCrary, & Leonard, 1977). 또한 우울 정도가 높은 어머니를 둔 아동들은 정신 병리 발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일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유능감의 저하 및 저조한 학업 수행 등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정, 2002).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애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경향을 보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부모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아동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결과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순, 2012; Felker & Stanwyck, 1971).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둘러싼 가정과 환경특성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란 어머니가 가족이나 친구 및 이웃을 비롯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애정, 소속감, 안정감과 같은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김갑순과 박윤조(2016)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신과 최영희(2010)의 연구에서는 만3-5세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에 대한 만족감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족응집력과 가족유연성과 같은 가족기능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Richmond & Stocker, 2008), 가족기능의 수준에 따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Kim, Cicchetti, Rogosch, & Manly, 2009). 가족기능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기능적인가에 관한 것으로, 가족 간 원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가치체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가족과 개별 가족원의 발달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유영주·최희진, 2003). 가족기능은 유아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유아기는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가족기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가정에서부터 사회적응을 위한 학습을 시작하므로 가족의 역기능은 유아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성격형성과 문제행동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허미정·장석진, 201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족기능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다(Richmond & Stocker, 2008). 반면, 가족원의

감정 및 욕구를 억압, 거부하고 의사소통이 잦은 주제의 변동을 나타내고 서로를 비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가족은 아동의 불안과 과잉행동, 회피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과 경쟁적, 공격적, 지배적 대인관계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김영희·안상미, 2008). 가족기능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체계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가족만이 담당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의 고유한 영역으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송성자, 2002).

한편,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한다(McCulloch et al., 2000).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유아 발달에 도움을 주는 풍부하고 다양한 가정에서의 자극 수준은 낮출 위험이 있고,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확률을 높인다(김세리·이강이, 2016).

이와 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물들이 축적되었으나, 기존연구물들은 대부분 아동의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문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각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존 장애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강지현 외, 2012).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내재화와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sten et al., 2016; Sourader et al., 2007). Baste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1.5세, 3세, 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유형화 하고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던 아이들은 몇 년 후에도 높은 외현화 문제행동 양상을 보이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았던 아이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높은 내재화 문제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모두 존재하는 유아의 경우 지속적인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urader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외현화 문제행동만 있는 집단이나 내재화 문제행동만 있는 집단보다 두 문제가 공존하는 집단이 가장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 만 4-6세 자료를 활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집단(non-problem, normal, in-danger group)이 도출되었다. 이 중 다른 집단들보다 사회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in-danger group)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지속적인 동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집단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만 4-5세 시점에서 다른 집단(normal group)보다 낮았으나, 내재화 문제행동은 3년 내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만 6세 시점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도 가장 높은 수준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동시적인 발생 집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내재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거나 공존하는 하위집단에 대한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공존장애 집단의 잠정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우리나라 유아들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두 문제의 동시적 존재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 연구물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특성과 주양육자인 어머니 특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져 왔으며, 가족의 기능성을 통합하여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유형을 도출하고, 문제행동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와 어머니, 가정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제 아동들의 문제행동 양상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재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집단과 두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비율이며 각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고찰하려 한다. 이 때, 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유아 개인특성만 아니라 유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가정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라 하위집단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집단별 문제행동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가정변수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의 모집단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층화다단계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집한 2,150가구를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하였다. 이 자료는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성장발달 과정과 양육환경의 변화를 조사함을 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집되었다(최윤경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이 만 5-6세 시점인 6-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분류에는 7차년도(만 6세) 자료가 활용되었으며²⁾,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여 6차년도(만 5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CBCL 문제행동 점수가 조사된 유아 1,6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외 결측인 변수는 EM-algorithm을 통해 대체하였다.

2.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행동은 유아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가 개발한 척도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영유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ges 1.5-5, CBCL 1.5-5)의 표준화 된 검사지 중 행동평가척도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문제,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과 기타문제의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예측변수들로는 유아의 월령, 성별, 가구소득과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 가족유연성 관련 변수들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양육태도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와 같은 온정적 양육태도 6문항과 “나는 아이가 어려워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와 같은 통제적 양육태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우울 척도(K6)를,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척도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관련한 2문항, 도구적 지지와 관련한 3문항, 사교적 지지와 관련한 4문항과 정보적 지지와 관련한 4문항의 총 1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가족기능은

2) Basten et al.(2016)의 연구에 의하면 만6세 아동들이 더 낮은 연령대의 아동들보다 외현화 문제 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공존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아동패널 4-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Lee et al.(2017)의 연구에 의하면 만4-6세 시점 동안 가장 높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집단이 만 6세 시점에서 외현화 문제행동도 다른 아동집단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만 6세 시점인 7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행동양상을 분류하였다.

Olson(2010)의 가족상호작용도구(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V)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확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상호작용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측정하는 균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 7문항과 가족리더십 및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측정하는 균형 있는 유연성(Balanced flexibility) 7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을 활용한 변수들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모두 .7이상으로 양호하였다.

〈표 1〉 연구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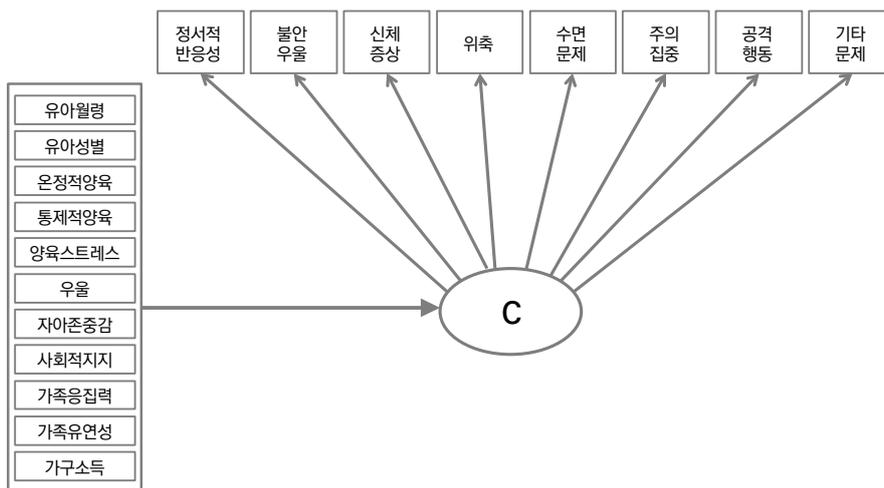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신뢰도	
문제행동	정서적반응성	정서적반응성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불안/우울	불안/우울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신체증상	신체증상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위축	위축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수면문제	수면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주의집중문제	주의집중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공격행동	공격행동 관련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기타문제	기타문제의 총점 가공변수	-	
	예측변수	유아월령	대상 아동의 월령	-
유아성별		남아=1, 여아=0	-	
어머니		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온정적 양육행동과 관련한 6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한 6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848 .76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11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874	
우울		우울과 관련한 6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919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5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87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와 관련한 13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준다.	.939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신뢰도
가정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과 관련한 7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887
	가족유연성	가족유연성과 관련한 7문항의 평균(5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822
	가구소득	ln(월평균 가구소득)	-

주: 신뢰도(Cronbach's alpha)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 잠재집단을 구성하고, 하위 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혼합모형(mixture model)을 적용하였다. 혼합모형은 관찰변수들을 토대로 잠재된 하위집단을 도출하는 확률적 군집방법으로,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도출하여 각 집단의 크기와 응답확률, 관측대상들의 집단 소속 확률을 밝히는데 목적은 두고 있다. 혼합모형은 전통적인 군집분석 방법에 비해 사후집단소속 확률에 근거한 모형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하며 적합한 군집 도출을 위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든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Muthén & Asparouhov, 2008). 이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 잠재집단을 도출한 후, 잠재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의 적절한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잠재집단 수 결정에는 정보지수(AIC, BIC, ABIC), 분류의 질(Entropy), 모형비교검증(VLMR, LMR)결과와 분류율을 고려하였다.

<표 2>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의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70813.84	69379.72	68759.42	68424.51
	BIC	70948.36	69562.67	68990.8	68704.32
	ABIC	70868.94	69454.66	68854.2	68539.12
분류의 질	Entropy	0.962	0.961	0.962	0.961
모형비교검증	VLMR	0.0001	0.0196	0.0386	0.7512
	LMR	0.0001	0.0205	0.0406	0.7519
분류율(%)	1	0.84	0.77	0.73	0.72
	2	0.16	0.18	0.08	0.09
	3		0.05	0.12	0.06
	4			0.07	0.07
	5				0.06

주: VLMR(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은 p값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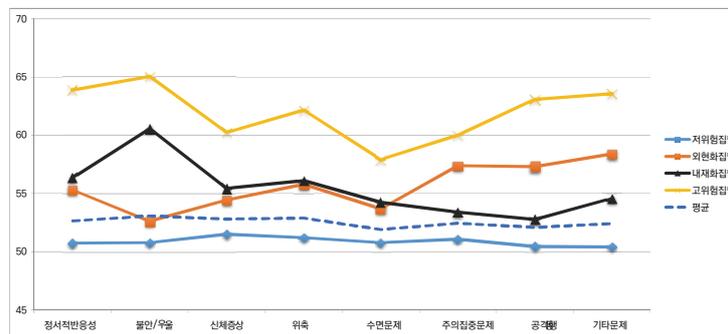
먼저, 정보지수는 수치가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적합한데,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하여 더 복잡한 모형이 됨에 따라 수치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감소폭이 둔화되는 지점을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의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Entropy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완벽한 분류를 의미한다. 이 분석에서는 잠재집단 수가 2개와 4개일 때 가장 Entropy 지수가 높았다. 모형비교검증결과는 VLMR과 MLR 모두 잠재집단 수가 4개로 증가할 때 까지는 계속 유의하였으나, 5개로 증가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모든 하위집단이 5%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분류의 질이 가장 높으며, 모형 비교검증 결과가 유의하였던 4개 집단을 최종 잠재집단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잠재집단의 구성은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문제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

구분	1 (저위험 집단)	2 (외현화 집단)	3 (내재화 집단)	4 (고위험 집단)
정서적반응성	50.73	55.298	56.351	63.895
불안/우울	50.774	52.612	60.562	65.04
신체증상	51.503	54.443	55.426	60.248
위축	51.189	55.786	56.101	62.158
수면문제	50.769	53.682	54.242	57.921
주의집중문제	51.072	57.387	53.393	60.017
공격행동	50.442	57.302	52.766	63.089
기타문제	50.396	58.411	54.576	63.577
N	1,176	126	198	105

분석대상 중 73%는 모든 문제행동수준이 평균보다 낮아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7%는 모든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게 나타나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제행동 수준이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사이에 분포하는 20% 중 8%는 상대적으로 주의집중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두드러져 외현화 (문제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12%는 주의집중이나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문제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구성

2.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예측요인 분석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네 개의 잠재집단에 예측변수를 추가하여 각 변수가 잠재집단 구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남아는 여아보다 외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높았으며, 내재화 집단보다 외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고위험 집단보다는 외현화 집단에, 외현화 집단보다는 저위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저위험 문제행동 집단보다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0.32배($\exp(-0.498) \times 0.53 \approx 0.32$)로 감소하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 속할 승산이 0.23배($\exp(-0.852) \times 0.53 \approx 0.2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저위험 집단보다 고위험 집단에 속할 승산이 2.3배($\exp(1.329) \times 0.61 \approx 2.3$)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내재화 집단보다 고위험 집단에 속할 승산이 1.82배($\exp(0.928) \times 0.72 \approx 1.82$)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유연성이 1표준편차 높을수록 저위험 집단보다 내재화 집단에 속할 승산이 0.27배($\exp(-0.758) \times 0.58 \approx 0.27$)로 낮아졌다.

<표 4> 문제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결정요인 검증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인명	Coef	S.E.
저위험집단	외현화 집단	유아월령	-0.082	0.091
		유아성별	0.739 **	0.277
		온정적양육	-0.498 *	0.249
		통제적양육	0.376	0.22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0.967 ***	0.259
		우울	-0.02	0.199
		자아존중감	-0.128	0.204
		사회적지지	0.064	0.261
		가족응집력	0.341	0.35
		가정 가족유연성	-0.476	0.317
		가구소득	-0.239	0.212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인명	Coef	S.E.	
내재화 집단	유아	유아월령	0.009	0.07	
		유아성별	-0.044	0.178	
		온정적양육	0.241	0.191	
	어머니	통제적양육	0.398 *	0.187	
		양육스트레스	0.401 *	0.199	
		우울	0.218	0.144	
	가정	자아존중감	-0.093	0.196	
		사회적지지	0.143	0.187	
		가족응집력	0.438	0.256	
	고위험집단	유아	유아월령	-0.758 **	0.244
			유아성별	0.039	0.17
			온정적양육	0.438	0.256
		어머니	통제적양육	-0.758 **	0.244
			양육스트레스	0.039	0.17
			우울	0.036	0.091
가정		자아존중감	-0.113	0.23	
		사회적지지	0.051	0.253	
		가족응집력	-0.079	0.279	
외현화 집단		유아	유아월령	1.329 ***	0.234
			유아성별	0.18	0.178
			온정적양육	0.18	0.178
		어머니	통제적양육	-0.061	0.212
			양육스트레스	-0.061	0.212
			우울	0.075	0.243
	가정	자아존중감	-0.039	0.376	
		사회적지지	-0.379	0.335	
		가족응집력	-0.082	0.167	
	외현화 집단	유아	유아월령	0.091	0.112
			유아성별	-0.783 *	0.327
			온정적양육	0.739 *	0.293
		어머니	통제적양육	0.022	0.274
			양육스트레스	-0.565	0.307
			우울	0.238	0.234
가정		자아존중감	0.035	0.261	
		사회적지지	0.079	0.304	
		가족응집력	0.097	0.401	
가정		가족유연성	-0.282	0.377	
		가족유연성	-0.282	0.377	
		가구소득	0.279	0.262	

기준집단	비교집단	변인명	Coef	S.E.		
고위험 집단	고위험 집단	유아월령	0.118	0.126		
		유아성별	0.118	0.126		
		온정적양육	-0.852 **	0.328		
		통제적양육	0.549	0.346		
		양육스트레스	-0.455	0.337		
		우울	0.362	0.328		
		자아존중감	0.2	0.25		
		사회적지지	0.067	0.269		
		가족응집력	0.011	0.343		
		가족유연성	-0.38	0.508		
		가구소득	0.098	0.427		
		내재화 집단	고위험 집단	유아월령	0.157	0.273
				유아성별	0.027	0.107
온정적양육	-0.069			0.283		
통제적양육	-0.19			0.306		
양육스트레스	-0.477			0.339		
우울	0.928 **			0.292		
자아존중감	-0.038			0.213		
사회적지지	0.032			0.276		
가족응집력	-0.068			0.295		
가족유연성	-0.477			0.426		
가구소득	0.379			0.375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세 유아들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을 도출하고,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라 네 개의 하위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문제행동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저위험 집단으로 전체의 73%의 유아가 이에 해당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문제행동 중 주의집중문제나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비해 두드러진 외현화 집단으로, 전체의 8%가 이에 해당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문제행동 중 정서적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 행동 수준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두드러진 내재화 집단으로 전체의 12%가 해당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전체 문제행동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모두 높은 고위험 집단으로 전체의 7%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한 Achenbach와 McConaughy(1997)의 연구가 우리나라 유아들의 문제행동 구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존장애 역시 우리나라 유아집단에서 발생됨을 확인시켜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공존하는 집단이 내재화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집단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집단에 비해서 내재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행동만 있는 집단이나 내재화 문제행동만 있는 집단보다 두 문제가 공존하는 집단의 위험성이 가장 높음을 살펴본 Sourader et al.(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이 공존하는 유아가 향후 지속적인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Basten et al.(2016)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집단에 속하는, 즉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유아에 대한 개입과 도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하위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우울, 가족유연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아는 여아보다 저위험 집단이나 내재화 집단보다 외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아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여아들은 내재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여아들의 빠른 사회화를 들기도 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지나치게 내면화하여 정서문제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Zahn-Waxler, Cole과 Barrett(1991)는 여아들의 높은 공감능력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즉, 여아에 대해서 부모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더 많이 하고, 남아에 대해서는 체벌을 조금 더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는 고위험 집단보다는 외현화 집단에, 외현화 집단보다는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온정적 태도와 반응성의 정도로,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전반적

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ornstein & Tamis, 1989). 아동은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가므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핵심적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제재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복·김문숙, 2011; 정현희·정순화, 2004). 또한, 이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저위험 집단 보다 다른 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우울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고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내재화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높았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을 수 없고,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우며 어머니로 인한 부정적 자극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정순, 2012; Abidin, 1992). 이러한 일관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관리를 통한 올바른 양육태도의 확립이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준다.

마지막으로, 가족유연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내재화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 기능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가족응집성(cohesion)과 가족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역할관계와 관계규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적응해가는 가족체계의 능력지표인 가족유연성(flexibility)으로 나누는 순환모델을 제시하였다(Olson, Gorall, & Tiesel, 2007). 이러한 가족기능은 자녀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Leidy, Guerra, & Toro, 2010), 선행 연구들에서는 가족유연성보다는 주로 가족응집성에 초점을 둔 연구물들이 많이 이루어졌다(홍예지·이순형, 2017). 그러나 본 연구결과, 가족응집력보다 가족유연성이 유아의 문제행동 잠재집단 소속을 결정하는 더 주요한 변수로 드러나 가족유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가족유연성 향상을 통한 아동문제행동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을 내재화 문제행동 집단과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 그리고 두 문제행동 수준이 모두 높게 공존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 유형에 따른 개입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이 극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보편화 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미화 외, 2013).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2015년 수립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 중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기 문제행동은 향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행동이 아직 고착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문제행동 중재에 있어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수정, 2008).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원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기 비행과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에서 내재적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을 추가하고,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선별하여 고위험가구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지속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유아의 성별은 문제행동양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일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정환경적 특성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에 대한 주요한 조절변수로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강지현·오경자, 2011; Blatt-Eisengart et al., 2009; Shaw et al., 1998). 이에, 유아의 성별에 따라 발생확률이 높은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는 유아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가정유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 개인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정단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체계들은 상호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허미정, 장석진, 2012). 가족기능은 가족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체계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런데 현대 가족기능의 약화는 개인의 기능저하로 이어져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발생에 영향을 미쳐 건강한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허미정, 장석진, 2012). 유아의 문제행동 역시 유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역기능으로 말미암은 문제로 보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아와 어머니, 가정의 특성을 함

게 고려하여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앞서 가족체계론의 입장에서 가족의 상호역동성과 가족기능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문제행동의 원인을 평가하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행동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유아의 문제행동양상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유아가 속한 가정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 유아의 문제행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유아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과 주양육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이미하외, 2013).

홍예지와 이순형(2017)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유연성이 낮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부담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유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기능 향상을 통한 자녀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녀의 문제행동 잠재집단 구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태도 및 가족기능 저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족 내에서의 지원과 사회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이 극소수 가정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로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특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기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서지은과 김희정(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 기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Olson(2000)의 연구에서도 가족유연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족 간 열린 의사소통의 촉진을 들고 있다. 또한, 표하나와 김형모(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기능 중 정서적 관여와 정서적 반응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형성과 소통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구성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의 범위 안에서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손병덕, 2009).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와 가정특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기능적인 가정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내 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과 서비스를 전담하는 가족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건강가정지

원센터의 경우, 진미정, 노신애와 소효중(2017)의 연구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제한된 예산과 낮은 인지도로 말미암은 한계가 보고되고 있어, 예산확대와 홍보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단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므로, 아버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혹은 아버지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조절효과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기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최근 연구물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상호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이 어머니와 가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김재철·윤경희·임은미(2012). 초등학생의 내재화-외현화 문제 잠재계층에 대한 다문화, 성, 부모, 개인역량의 효과. *교육종합연구*, 10(4), 201-224.
- 강지현·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길혜지·황정원(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김갑순·박윤조(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http://dx.doi.org/10.21213/kjcec.2016.16.3.27>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선미·김영희(2015). 어머니의 부부관계, 우울, 신체화증상과 수면의 질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 219-243.

- 김세리·이강이(2016).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 212(6), 41-58. <http://dx.doi.org/10.14698/jkce.2016.12.06.041>
- 김영희·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 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13.
- 김재엽·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현정(2002).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은·김희정(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57-486.
- 성다점·김춘경(2017). 어머니의 출산 전 우울과 임신 시 느낌이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 경험유무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1(2), 19-33.
- 손병덕(2009).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 방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의 적용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4, 1-21.
- 송성자(2002).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법문사.
- 송하나·설희정(2015).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과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휴노컨설팅.
- 오연택·연구승(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지적 능력 간의 관계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31-50.
- 오정순(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유영주·최희진(2003).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5-28.
- 이미화·김의향·김운기·심미경·강지현·유희정·최혜영·장명림·김은설·이정림·장혜진·권미경·엄지원·서원경·손승희·안현숙·유주연·정혜원·민미희·김수진·김영란·윤지연(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용안내서.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이수정(2008). 유아교육 환경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동향 및 지원 요소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61-187.
- 이순복·김문숙(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 이영진·노승희(201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4), 301-324.

- 이정신·최영희(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3(1), 19-32.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임현주·최향준·최선녀(2012).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09. <http://dx.doi.org/10.5723/KJCS.2012.33.2.91>
- 정소희(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초, 중, 고 발달단계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6), 119-144. <http://dx.doi.org/10.21509/KJYS.20.16.06.23.6.119>
- 정현희·정순화(2004).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1-19.
- 진미정·노신애·소효중(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 *한구가정관리학회지*, 35(3), 113-126. <http://dx.doi.org/10.7466/JKHMA.2017.35.3.113>
- 최윤경·배운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표하나·김형모(2005). 가족기능이 아동의品行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9, 505-525.
- 허미정·장석진(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11-1231.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분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125.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chenbach, T. M., & McConaughy, S. H. (199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Practical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applications.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New York: Academic Press.
- Basten, M., Tiemeier, H., Althoff, R. R., van de Schoot, R., Jaddoe, V. W., Hofman, A., ... & van der Ende, J. (2016). The stability of problem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an empirical approach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2), 393-404. <https://doi.org/10.1007/s10802-015-9993-y>
- Blatt-Eisengart, I., Drabick, D. A., Monahan, K. C., & Steinberg, L. (2009). Sex

-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family risk factors and childhood externalizing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491. <https://doi.org/10.1037/a0014942>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89).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43), 49-61. <https://doi.org/10.1002/cd.23219894306>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 <https://doi.org/10.1037//0012-1649.22.6.723>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67-488.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3114>
- Costa, N. M., Weems, C. F., Pellerin, K., & Dalton, R. (2006).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An examination of specificity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 113-122. <https://doi.org/10.1007/s10862-006-7489-3>
- Davies, P. T., Dumenci, L., & Windle, M. (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38-254. <https://doi.org/10.2307/353897>
- Felker, D. W., & Stanwyck, D. J. (1971). General self-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s after an academic task. *Psychological reports*, 29(1), 60-62. <https://doi.org/10.2466/pr0.1971.29.1.60>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https://doi.org/10.1111/1467-8624.7402017>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13-333. <https://doi.org/10.1017/s0954579404044530>
- Kauffman, J. M.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Merrill/Prentice Hall, One Lake Street, Upper Saddle River, NJ 07458.
- Kim, J., Cicchetti, D., Rogosch, F. A., & Manly, J. T. (2009). Child maltreatment

- and trajectori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al function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3), 889-912. <https://doi.org/10.1017/s0954579409000480>
- Lee, J. R., Kim, G., Yi, Y., Song, S., & Kim, J. (2017). Classifying Korea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1*(1), 6. <https://doi.org/10.1186/s40723-016-0026-2>
- Leidy, M. S., Guerra, N. G., & Toro, R. I. (2010). Positive parenting, family cohes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among immigrant Latino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252. <https://doi.org/10.1037/a0019407>
- McCulloch, A., Wiggins, R. D., Joshi, H. E., & Sachdev, D. (2000). Internalising and externalising children's behaviour problems in Britain and the US: relationships to family resources. *Children & Society*, *14*(5), 368-383. [https://doi.org/10.1002/1099-0860\(200011\)14:5<368::aid-chi604>3.0.co;2-r](https://doi.org/10.1002/1099-0860(200011)14:5<368::aid-chi604>3.0.co;2-r)
- Muthén, B., & Asparouhov, T. (2008).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with non-Gaussian random effects. *Longitudinal data analysis*, 143-165.
- Nelson, J. R., Stage, S., Duppong-Hurley, K., Synhorst, L., & Epstein, M. H. (2007). Risk factors predictive of the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xceptional Children*, *73*(3), 367-379. <https://doi.org/10.1177/001440290707300306>
- Olson, D. H. (2000). Empirical approaches to family assessment. *The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21-127. <https://dx.doi.org/10.1111/1467-6427.00142>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Life Innovations.
- Olson, D. H., Gorall, D. H., & Tiesel, J. W. (2007).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9.00175.x>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https://doi.org/10.1111/j.1545-5300.1983.00069.x>
- Patterson, G. R., Dishion, T. J., & Yoerger, K. (2000). Adolescent growth in new forms of problem behavior: Macro-and micro-peer dynamics. *Prevention science*, *1*(1), 3-13. <http://doi.org/10.1023/A:1010019915400>
- Pinquart, M. (2017).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 <https://doi.org/10.1037/dev0000295>

- Reitz, E., Deković, M., Meijer, A. M., & Engels, R. C.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3), 272-295. <https://doi.org/10.1177/0272431606288591>
- Renk, K., Roddenberry, A., Oliveros, A., & Sieger, K. (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1), 37-57. https://doi.org/10.1300/j019v29n01_03
- Richmond, M. K., & Stocker, C. M. (2008).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hostility and siblings' externaliz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marital discor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31-240. <https://doi.org/10.1037/0893-3200.22.2.231>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hagle, S. C., & Barber, B. K.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6*4-974. <https://doi.org/10.2307/352776>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Vondra, J. I., Cohn, J. F., & Bell, R. Q. (1998). The development of early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 transform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95-107.
- Sourander, A., Jensen, P., Davies, M., Niemela, S., Elonheimo, H., Ristkari, T., ... & Tamminen, T. (2007). Who is at greatest risk of adverse long-term outcomes? The Finnish From a Boy to a Man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9), 1148-1161. <https://doi.org/10.1097/chi.0b013e31809861e9>
- Welner, Z., Welner, A., McCrory, M. D., & Leonard, M. A. (1977).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inpatients with depression: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http://dx.doi.org/10.1097/00005053-197706000-00006*
- Zahn-Waxler, C., Cole, P. M., & Barrett, K. C. (1991). Guilt and empathy: Sex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Garber, J., & Dodge, K. A.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10일 / 게재 승인 6월 12일
- 교신저자: 하여진, 서울대학교 박사, yeojin04@snu.ac.kr

Abstract

Application of the Mixture Modeling to the Patterns of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Ha Yeo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the Korean preschool children can be classified into latent groups based on their patterns of behavior problems, and what the determinants of these groups are. To do this, mixture modeling was adapted to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using behavior problem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presented that four patterns of behavior problem latent groups were extracted: low-risk group, externalizing problem focused group, internalizing problem focused group, and high-risk group. The low-risk group showed low problem behaviors than other groups, and the high-risk group presented high problem behaviors than other groups. The externalizing problem focused group reported highe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a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hereas the internalizing problem focused group showed higher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a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the results of the mixtur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children's gender,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family flexibility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reschool children's problem behavior, mixture modeling